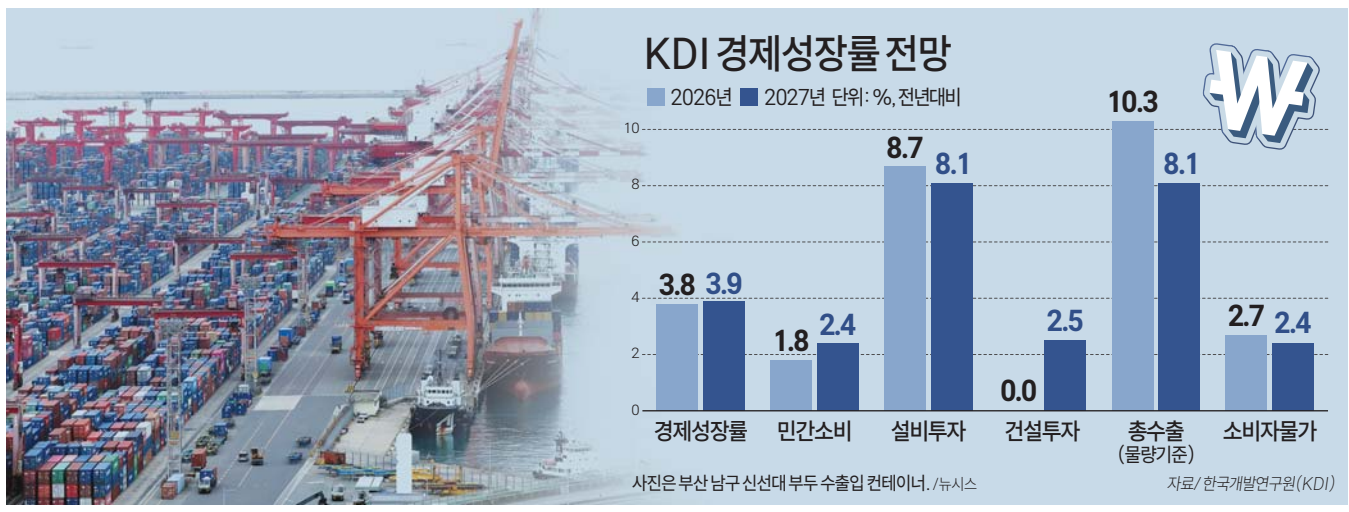
올해 3.8%·내년 3.9% 성장… '반도체 쏠림' 체감경기 격차

KDI, 2026 하반기 경제전망

성장의 3분의 2 반도체가 기여
GDP성장률 변동폭 확대 우려
일부 고임금 산업에만 수혜 집중
서민·소상공인, 산업간 격차 확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후반대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설비투자를 견인하며 내년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전체 성장의 3분의 2가량을 반도체가 떠받치는 구조적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지표의 화려함과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현장 경기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 당시 전망치(올해 3.2%, 내년 2.2%)와 비교하면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다.

◆ 반도체 날개 달고… 올해 3.8%·내년 3.9% '고공행진'

KDI는 대규모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지속을 근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8%, 내년에는 3.9%로 전망했다.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는 올해 8.7%, 내년 8.1%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건설투자 역시 비주거용 건축 및 플랜트 공사 개선에 힘입어 올해 0.0%에서 내년 2.5%로 반등할 것으로 관측됐다. 총수출(물량 기준)은 올해 10.3%, 내년 8.1%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5162억 달러에서 내년 601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내년 경제 흐름은 상반기 3.7%, 하반기 4.0%로 예상됐다. 수출 호조에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상반기 1.6%에서 하반기 3.1%로 확대되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 20만 명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 안정세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2.4%로 둔화되겠지만, 높은 수요 압력으로 인해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2.6%)에 이어 내년(2.5%)에도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 "성장의 3분의 2는 반도체… 대외 변동성엔 취약"

이번 경제 전망치 상향의 배경에는 경제 전체에서 반도체 등 전자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부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10% 아래였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20.7%까지 올라갔고 하반기를 포함하면 23%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올해 성장률의 반도체 기여도는 절반 정도이며, 내년 3.9% 성장 중 약 3분의 2 정도를 반도체가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투자, 공장 건설 등의 파급효과까지 더해져 전체 성장을 강력하게 밀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김미루 부장은 "이 부문의 가중치가 커져 전체 GDP 성장률의 변동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쪽 성장률이 잘 나오면 4%를 넘을 수 있지만,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면 성장률이 3.5%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축소 및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을 꼽았다.

◆ 온기는 일부에 집중… "체감경기 격차 해소와 구조개혁 필요"

지표 상의 '역대급 호황'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온기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도 진단이 나왔다.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비 총량은 늘어나겠지만, 수혜가 일부 고임금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DI가 함께 발표한 현안 분석에 따르면, 최근 경제성장률 반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은 50% 내외에 달하며,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정체와 한계기업 증가가 겹쳐 산업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KDI는 "내년에도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상당 폭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경기가 상당한 확장세에 있는 만큼 재정이 물가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지출은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화시스템, 드론 방어 레이다 美 수출길

美 방산기업과 계약… 파일럿 수출
정유시설·데이센터 등 민간 우선배치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단거리 AESA 레이다 실물.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이 드론 방어용 단거리 레이다를 미국에 수출하며 중동에 이어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드론 위협이 전장을 넘어 산업 시설로 번지면서 군과 민간 모두에서 수요가 늘고 있어, 이번 수출이 대규모 후속 계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대공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미국 방산기업 리벨리온 인더스트리즈(Rebellion Industries)와 단거리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은 대규모 수출에 앞서 소량을 먼저 공급해 현지 적합성을 검증하는 파일럿 수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공급 수량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보잉에 항공전자 장비를 공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납품은 2027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미국 내 정유 시설과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종합경기장 등 민간 인프라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다. 양사는 대규모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 계약도 논의하고 있다.

단거리 AESA 레이다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전투기와 공격헬기, 드론 등 근거리 공중 위협을 탐지·추적한다. 안테나와 본체, 전원을 하나로 묶은 일체형 구조로 크기와 무게를 줄여 전차·함정 같은 무기체계는 물론 민간 시설과 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안개나 전자파 간섭이 있는 환경에서도 조류와 무인기를 정확히 구분한다.

한화시스템은 단거리 AESA 레이다를 탐지거리별로 세분화해 제품군을 넓힐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먼 거리의 빠른 표적을, 민수 분야에서는 가까운 거리의 표적을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레이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출하는 10km 제품에 더해 내년 초까지 5km와 1km 제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구미사업장 등에 자동화 라인을 도입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도 단거리 AESA 레이다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성과가 다기능레이다(MFR)에 이어 또 하나의 강력한 K-방산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서울 개봉·목2·수유·하월곡 모아타운 추진

총 6319가구 규모 조성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양천구 목2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하월곡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총 631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개선 방안 등을 반영해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모아타운 4곳의 관리계획안이 각각 수정의결 및 조건부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6만5416.6㎡)는 기존 1161가구에서 324가구 늘어난 14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매봉산과 인접한 저층주거지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72.1%에 달하는 지역이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7만2347㎡)는 모아주택 3곳을 통합개발해 임대주택 287가구를 포함한 총 1786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목동 택지지구와 인접한 이 지역은 구릉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임대주택 부담을 줄였다. 건축물은 최고 22층으로 계획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대(9만3814.5㎡)는 모아주택 6곳을 통해 기존 1373가구에서 1068가구 늘어난 총 244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가계빚 2030.5조… 증가폭 1년 반 만에 최소

한은, 전년대비 65.2조 3.3% 증가
가계대출 잔액 1896.8조, 4.7조↑
주택 거래·아파트 분양 감소 영향

올해 3분기 말 가계빚이 203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관련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폭은 1년 반 만에 가장 작았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 등을 포함한 판매신용은 증가폭이 커졌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3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9조8000억원(0.5%) 증가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65조2000억원(3.3%) 늘었다.

분기 증가액은 2분기 26조4000억원에서 크게 축소됐다. 2025년 1분기 2조7000억원 증가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과 외상 구매대금인 판매신용을 합한 통계다.

가계대출 잔액은 1896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2분기 25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이 역시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소였다.

상품별로는 주택관련대출이 9조6000억원 늘어 전분기 12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잔액은 1202조3000억원이었다. 주택관련대출에는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이 포함된다.

한은은 주택 매매거래와 아파트 분양물량 감소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신고 기준으로 2분기 20만5000호에서 3분기 16만1000호로 줄었다. 아파트 분양물량도 같은 기간 7만4000호에서 6만2000호로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전분기 13조1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4조9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잔액은 694조5000억원이었다. 증시 조정에 따라 은행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액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증권사 신용공여액은 2분기 4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3조1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8조1000억원 늘어 전분기 13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다만 은행의 주택관련 대출 증가액은 6조8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됐다. 은행권 전체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기타대출이 6조5000억원 증가에서 9000억원 감소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분기 3조1000억원 증가에서 1조원 감소로 전환했다. 기타금융기관 등의 대출도 8조9000억원 증가에서 2조4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판매신용은 대출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9월 말 잔액은 13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조원 늘었다. 증가액은 2분기 1조1000억원에서 확대됐고 2021년 4분기 5조2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신용카드 이용규모 확대가 판매신용 증가를 이끌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2분기 208조3000억원에서 3분기 21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한은은 이번 공표에서 업권분류 조정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초자료 정비를 반영해 과거 통계 일부를 수정했다. 기초자료 정비에 따른 시계열 수정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자료에 적용됐다. /김주형 기자 gh471@